

찬 송 508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성령강림절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구원, 그 이후(2) / “종교적 열심인가, 일상 속의 공의와 자비인가?”
/ 암5:21-24; 약1:26-27; 마23:23-24 >

✠ 교회 소식 ✠

㉮ 예배 :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 보좌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한 사람의 미소가 바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2026 설교시리즈 “구원 그 이후”				
날 짜	제 목	구 약	서신서	복음서
8월 23일	구원, 그 이후 (1) : 도피인가, 변혁인가?	렘 29:4-7	롬 8:19-23	마 5:13-16
8월 30일	구원, 그 이후 (2) : 종교적 열심인가, 일상 속의 공의와 자비인가?	암 5:21-24	약 1:26-27	마 23:23-24
9월 6일	구원, 그 이후 (3) : 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환대인가?	온 4:8-11	엡 2:14-18	행 10:9-15
9월 13일	구원, 그 이후 (4) : 세상 속의 거룩, 분리주의인가 성육신의 참여인가?	사 58:6-9	빌 2:5-8	눅 5:27-32
9월 20일	구원, 그 이후 (5) : 세상을 대하는 방식, 기독교 제국주의인가 섬김의 십자가인가?	숙 4:6-10	고전 1:27-31	막 10:41-45
9월 27일	구원, 그 이후 (6) : 복음과 사회 구조 - 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미 6:6-8	엡 6:10-13	눅 4:18-21
10월 4일	구원, 그 이후 (7)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사 65:17-21	벧후 3:11-13	마 25:34-40

㉮ 모임

- 한샘 여선교회 월례회 : 23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재산관리위원회 : 23일(오늘) 오후1시, 회의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27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 남녀선교회 영성회복모임 : 30일(주) 오후 1시, 친교실
(신앙간증: 최덕천 장로 / 기도: 이용우 집사 / 찬양지도: 오금숙권사)

㉮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 8월 한달 점심식사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5,000원에 판매합니다.

- 23일(오늘) 메뉴 : 가지덮밥(담당 : 한길 여전도회)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76호
2026. 8. 23.
성령강림절 후 열셋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구원, 그 이후(1)”도피인가, 변혁인가?”

마태복음 5:13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 이 세상을 건디는 도피처가 아닙니
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은 고기 속으
로 녹아들어 부패를 막아야 하고, 빛은 어둠을 피하지 않고 밝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
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도 세상과 담을 쌓고 정죄하는 영적 우울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 불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shalom)를 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나는 평소애 '세상(또는 직장, 믿지 않는 이웃)'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혹시 거리를 두고 정죄하거나 피하고 싶은 곳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2. 내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에서 소금'처럼 나를 녹여 부패를 막고 평화를 이
루기 위해 이번 주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작은 희생이나 섬김)
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회중의 기도> 김연옥 권사